



PRESS RELEASE

2025. 2. 28

산타 바바라 와인 x 정식스페이스 페어링 이벤트 성료

지난 2 월 28 일(금), 산타 바바라 와인 생산자 연합(Santa Barbara Vintners Association, 이하 SBVA)의 테이스팅 이벤트가 개최됐다.



산타 바바라 와인 x 정식스페이스 페어링 이벤트에 참여한 와인 생산자들과 정식당 김민준 소믈리에

캘리포니아와인협회(이하 CWI)의 주최로 지난 2 월 27 일(목)에 열린 캘리포니아 와인 얼라이브 테이스팅 2025(California Wines Alive Tasting 2025)를 맞아, SBVA 소속의 10 개 와인 생산자가 방한했다. CWI 는 캘리포니아 와인의 다양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테마 와인 산지'를 지정하고, 그에 초점을 맞춰 트레이드 테이스팅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다. 2022 년 로다이(Lodi),

문의: 캘리포니아와인협회 한국 사무소 E-mail. info@winein.co.kr | Tel. 02-6080-1607

2023 년 웨스트 소노마 코스트(West Sonoma Coast), 2024 년 파소 로블스(Paso Robles)에 이어 올해의 테마 와인 산지는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다. 이번에 방한한 산타 바바라의 열 개 와인 생산자는 캘리포니아 와인 얼라이브 테이스팅의 테마 시음 부스와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자세히 소개됐다.



산타 바바라 와인 생산자 연합의 앨리슨 라슬렛(Alison Laslett) 대표

캘리포니아 와인 얼라이브 테이스팅 2025 의 다음날, CWI 와 SBVA 는 국내 주요 미디어를 대상으로 산타 바바라 와인을 선보이기 위해 '정식스페이스(Jungsik Space)'에서 테이스팅 이벤트를 진행했다. 정식스페이스는 미국 최초 미쉐린 3 스타 한식당이자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서 2 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정식당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다. 이번 행사는 정식당에서 준비한 다양한 한식 카나페에 산타 바바라 와인을 곁들여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식당의 김민준 헤드 소믈리에에는 준비된 8 종의 한식 카나페에 잘 어울리는 산타 바바라 와인을 직접 소개하며 테이스팅을 이끌었다.



한식 카나페와 산타 바바라 와인의 페어링을 소개하는 김민준 소믈리에



산타 바바라 와인에 페어링된 정식스페이스의 한식 카나페

7 개의 미국정부공인 포도재배지역(AVAs)를 보유한 산타 바바라 카운티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는 와인 산지다. 차가운 알래스카 해류의 영향이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서늘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낸다. 수백만 년 전 북미대륙판과 태평양판이 충돌하며 형성된 곳으로, 산맥이 90 도로 휘어 해안과 수직으로 만나는 횡단 계곡(Transverse Valley) 지형을 가졌다. 이 독특한 지형 조건은 극단적인 일교차와 다양성 넘치는 중기후(Meso-climates)를 만들어낸다. 이 다양성 덕분에 무려 70 여 종이 넘는 포도 품종을 길러내고 있으며, 특히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시라(Syrah)와 그르나슈(Grenache)와 같은 론(Rhone) 품종도 산타 바바라 전역에 걸쳐 생산되며, 카베르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과 소비뇽 블랑(Sauvignon Blanc) 등의 보르도 품종 역시 전통적인 와인 산지와 견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한다.



행사에서 선보인 산타 바바라 와이너리 페스 파커(Fess Parker)의 와인들

산타 바바라는 축복받은 자연 조건과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와인 인수지애스트(Wine Enthusiast) 매거진이 선정한 <2021 올해의 와인 산지>에 오르며 월드클래스 와인의 생산지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커뮤니티와 포도 재배 방식에서도 다양성을 자랑하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여성 와인메이커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1970년대부터 이곳의 여성 와인메이커들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며 와인을 생산해왔다.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한 노력도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와인메이커들은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어려움에는 함께 맞서 단결한다. 산타 바바라의 포도밭 중 상당수는 디미터(Demeter) 바이오다이나믹 인증, 캘리포니아 유기농 인증(CCOF), 지속 가능성 실천 인증(SIP)을 받았고, 재생 유기농 인증을 받은 포도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브루어 클리프턴(Brewer Clifton)의 와인메이커 그렉 브루어(Greg Brewer)

이번에 산타 바바라 와인 생산자 연합 소속으로 한국을 찾은 와이너리와 정식스페이스에서 선보인 와인은 다음과 같다.

행사에 참여한 산타 바바라 와이너리

1. 오 봉 클리마 (Au Bon Climat)
2. 브루어 클리프턴(Brewer Clifton)
3. 크라운 포인트(Crown Point)
4. 디어버그 & 스타 레인(Dierberg & Star Lane)
5. 페스 파커(Fess Parker)
6. 라바지(LaBarge)
7. 롱고리아(Longoria)
8. 마제럼(Margerum)
9. 네이티브 9(Native 9)
10. 프레스퀼(Presquile)

시음 와인 리스트

1. Au Bon Climat Santa Barbara County Los Alamos Vineyard Chardonnay 2022
2. Au Bon Climat Isabelle Pinot Noir 2021
3. Brewer-Clifton Sta. Rita Hills Chardonnay 2022
4. Brewer-Clifton Sta. Rita Hills Pinot Noir 2023

문의: 캘리포니아와인협회 한국 사무소 E-mail. info@winein.co.kr | Tel. 02-6080-1607

5. Crown Point Cabernet Sauvignon 2017
6. Crown Point Cabernet Sauvignon 2021
7. Star Lane Astral Cabernet Sauvignon 2023
8. Dierberg Drum Canyon Chardonnay 2021
9. Fess Parker Chardonnay 2023
10. Fess Parker Pinot Noir 2023
11. LaBarge Grenache 2021
12. LaBarge Syrah 2021
13. Longoria Lovely Rita Pinot Noir 2023
14. Longoria Tempranillo 2022
15. Margerum M5 Red 2023
16. Margerum M5 White 2023
17. Native 9 2020
18. Rancho Viñedo 2020
19. Presqu'île 'Presqu'île Vineyard' Aligote 2023
20. Presqu'île 'Presqu'île Vineyard' Pinot Noir 2022